

발표일 : 2015년 5월 29일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상순에는 전 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음. 중순은 남해서부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남해서부해상을 제외한 전 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음. 하순에는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상순은 전 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음. 중순은 남해서부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하순은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0~2014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6월 16일 삭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6월 18일에 910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6월 16일에 379 cm, 동해의 포항은 6월 18일에 49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기상 급변으로 인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 장기간 장마로 인한 전기시설, 항해장비 점검 철저
- 레저 보트 및 요트 등 조우시, 충분한 시간과 거리로 안전항해
- 해상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안전 경각심 고취
- 안개 등 시계 불량에 의한 충돌사고 예방

어업기상

- 6월의 연안 수온은 동해, 남해가 1℃ 내외의 저온현상을 보이겠고, 서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겠음.

- 예상 수온 : 동해: 13~19℃ , 남해 : 16~20℃, 서해 : 18~23℃



▶ 최근 5년간('10~'14년) 6월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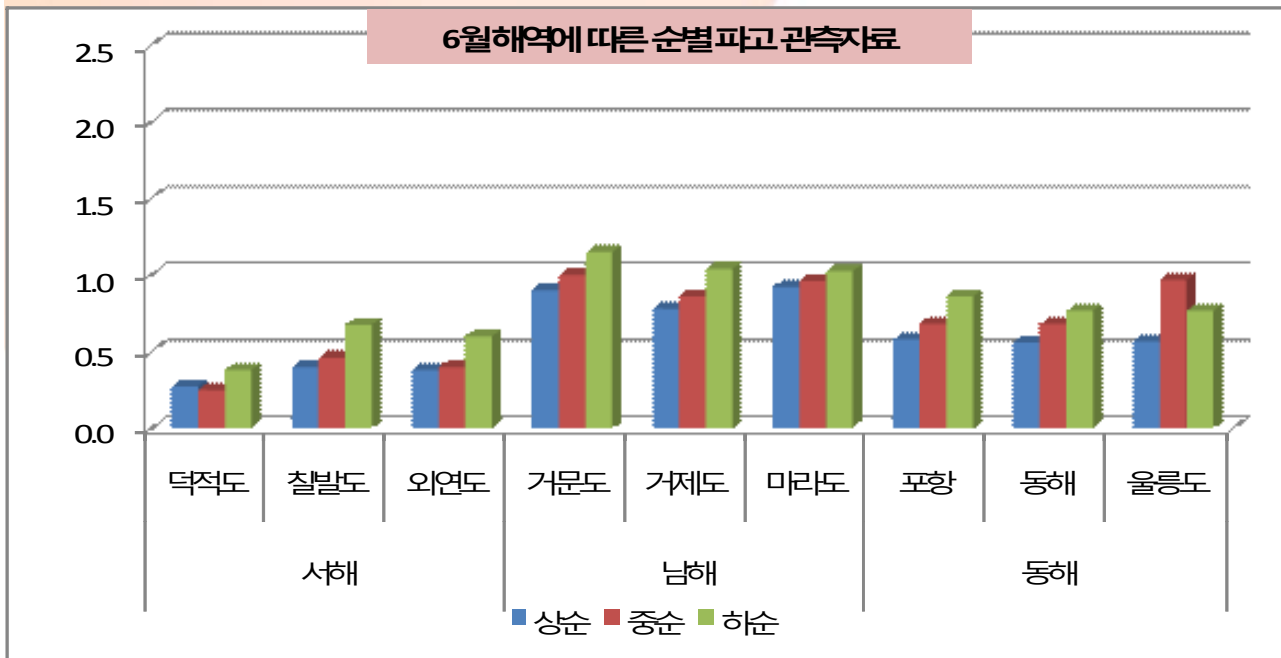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0~2014년) 6월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해역에 따른 해양기상부이의 파고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전 해상에서 파고가 대체로 낮았음. 상순에는 전 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음. 중순에는 동해(울릉도)와 남해(거문도, 마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하순에는 남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6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거문도로 1.2m(하순)이였음.(그림1)

※ 울릉도 부이 자료는 2012년도 신설로 인하여 해당년도부터 추가함.

### ▶ 최근 5년 및 2014년 6월 풍랑특보일수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는 평균 0.6일이었으며, 하순에 1.4일로 상순(0.4일)과 중순(0.1일)보다 많았음. 지난해(2014년) 6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상순에 평균 1.4일, 중순 0.4일, 하순 0.3일이었으며, 상순에는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 일수(0.6일)보다 많았음. 최근 5년간 6월에 풍랑특보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역은 제주도남쪽먼바다로 총 5.4일이었으며, 동해중부앞바다에서 0.4일로 가장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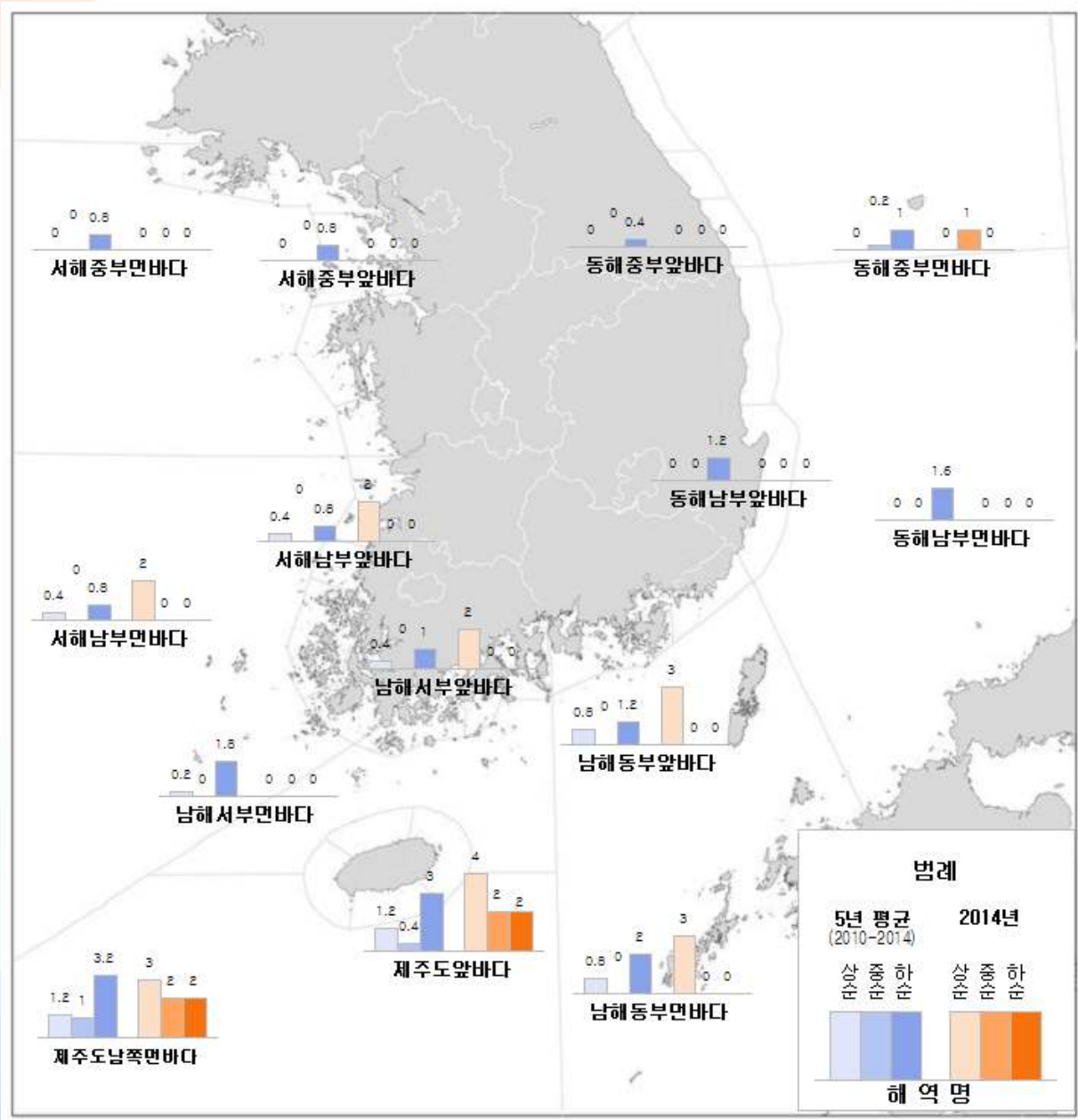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10~2014년) 및 2014년 6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 ▶ 이안류 예측정보 서비스 확대

기상청은 이안류 발생으로 인한 조난사고 예방을 위해 이안류 예측정보를 2015. 6월부터 부산 해운대, 양양 낙산, 제주 중문·색달, 충남 대천해수욕장까지 4곳으로 확대 제공

### ◆ 이안류란?

‘이안류(離岸流, Rip Current)’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하여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말함. 일반적으로 파도는 해안으로 밀려드는데 이안류가 발생하면 해안가 반대방향의 빠른 속도(초속 2~3m/s)로 피서객을 휩쓸어가기 때문에 여름철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임. 이안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해안가에서도 매년 100여 명이 이안류에 의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어 해수욕장 4대 위협요인(해상이변, 유해생물, 오염물질, 안전부주의) 중 하나이며, 국제적으로도 중요이슈임.

### ◆ 이안류 발생원인

이안류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해안으로 밀려와 쌓이기 때문임.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에너지만 전달하고 바닷물 자체는 제자리에서 아래위로 요동치기만 한다. 반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파도가 깨지면서 바닷물 자체가 해안으로 밀려온다. 밀려온 바닷물은 다시 바다로 빠져나갈 곳을 찾으려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데, 쌓인 바닷물은 육지를 향해 들어오는 파도가 약한 지점, 즉 바다 아래 골이 생긴 곳 등에서 깊은 바다 쪽으로 빠져나감.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경사가 완만하며 물결이 부서지는 구역이 넓은, 일직선의 해변을 따라 좁은 수로를 형성하는 모래톱이 연안인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짐. 삼각파도가 일거나 풍랑의 변동이 심한 곳, 색깔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는 곳, 거품, 해조 등이 바다를 향하여 일렬로 꾸준히 움직이는 곳에서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음.

### ◆ 이안류 예측정보 서비스 확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드는 방향과 바람 등 기상조건이 맞아 떨어져 이안류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특정 해수욕장들이 있는데, 부산 해운대, 제주도 중문, 양양 낙산해수욕장,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이 이안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잘 부합하는 해수욕장임.

기상청은 이안류 예측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하여 지난해에 해운대, 중문, 낙산 해수욕장에 대한 이안류 예측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2015. 6월부터는 대천 해수욕장까지 총 4개 해수욕장의 이안류 예측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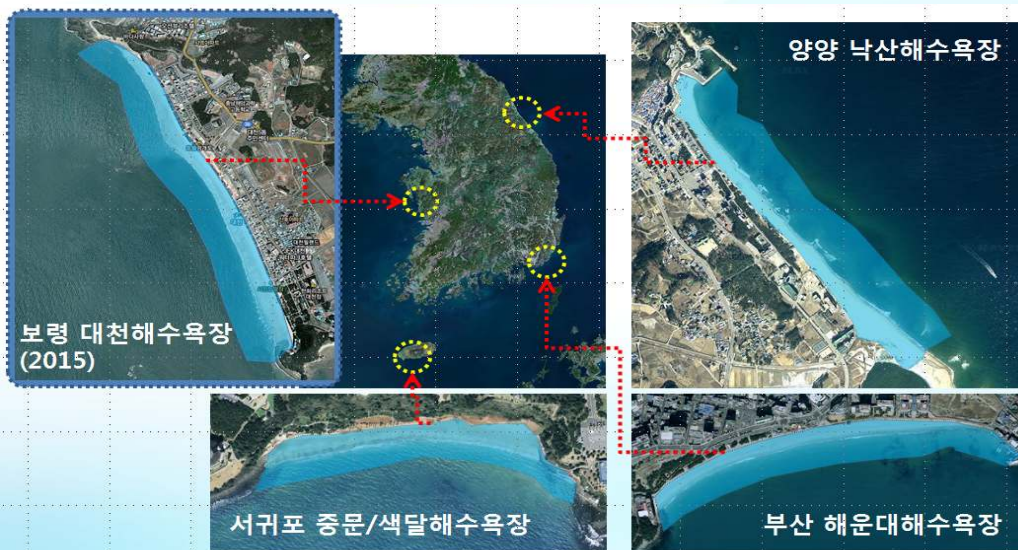
기상청의 이안류 예측정보는 오늘부터 모레(3일간)까지 3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일반 국민들이 위험정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4단계(안전-주의-경계-위험)의 정보를 색상(파랑-노랑-주황-빨강)으로 알기 쉽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이안류 예측정보 확인 방법: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 홈 > 바다날씨 > 바다예보 > 수치예측자료 > 해양지수정보 > 이안류 예측정보
- 테마예보의 해수욕장 예보에 이안류 예측정보'

		오늘(07일)				내일(08일)				모레(09일)			
요소		09	12	15	18	09	12	15	18	09	12	15	18
이안류	위험												
	경계												
	주의												
	안전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 예시>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 해수욕장>

▶ 이안류 발생시 행동요령

## 이안류에서 탈출요령!

이안류란 해류가 갑자기 해변쪽에서 바다쪽으로 강하게 흐르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이안류



이상하다.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네!

해류 방향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바다쪽으로 흘러나감 **01**



사람살려! 해변으로 갈수가 없어!!

해류 방향

**02** 아무리 해변쪽을 향해 헤엄쳐도 바다쪽으로 흘러감



이안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 해류방향에 45° 방향으로 헤엄쳐 이안류로부터 벗어나야함 **03**

앗!! 그렇지. 이안류 방향과 45° 방향으로 헤엄쳐, 이안류에서 벗어난 다음 해변쪽으로 헤엄치자!!

해류 방향

해변



미리 공부해둔 이안류 안전수칙 때문에 살았어!!

**04** 우선, 침착해야 함.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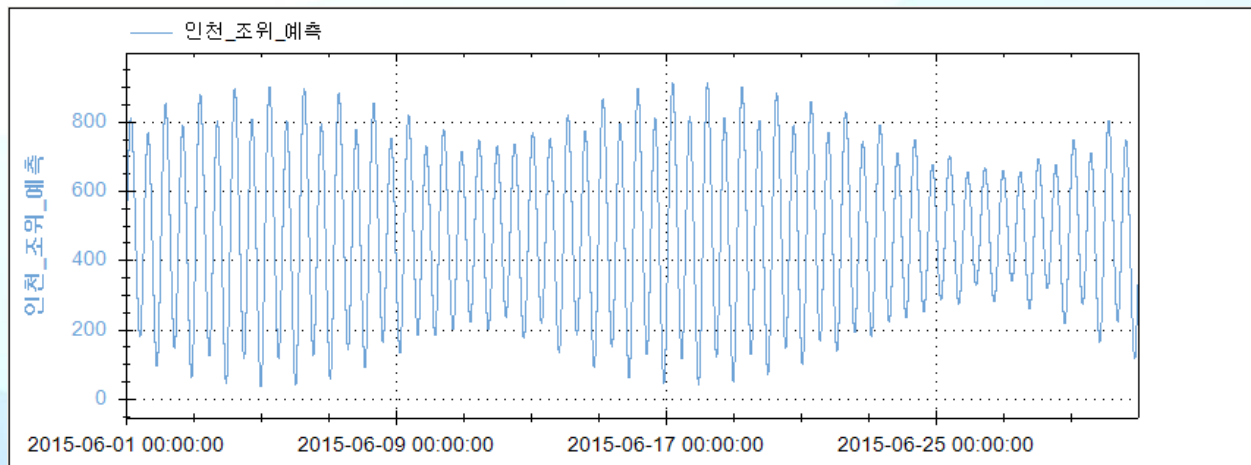
위험한 이안류, 침착하게 안전수칙을 기억하면 피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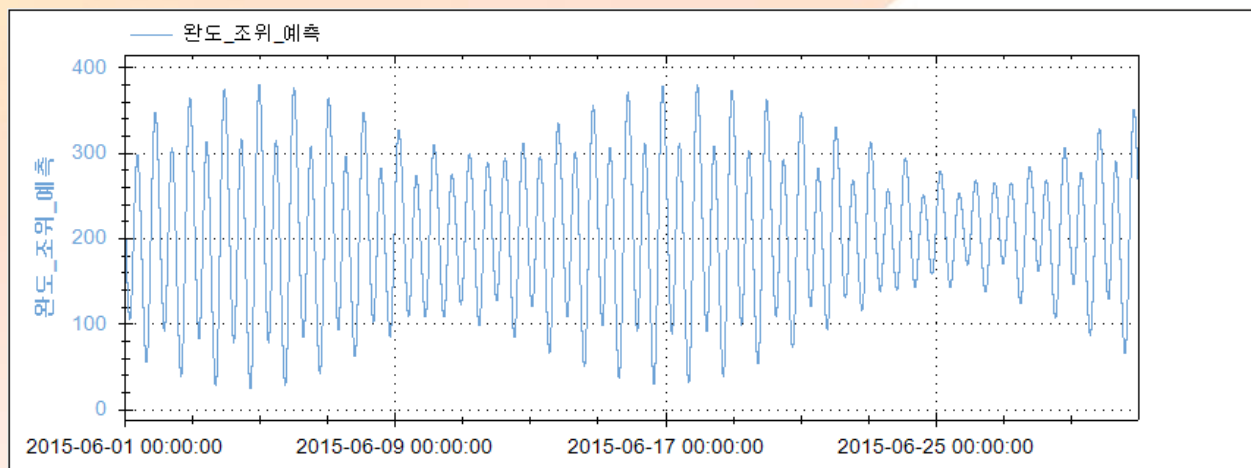
## ▶ 2015년 6월 조석 예보

6월 16일 삭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6월 18일에 910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6월 16일에 379 cm, 동해의 포항은 6월 18일에 49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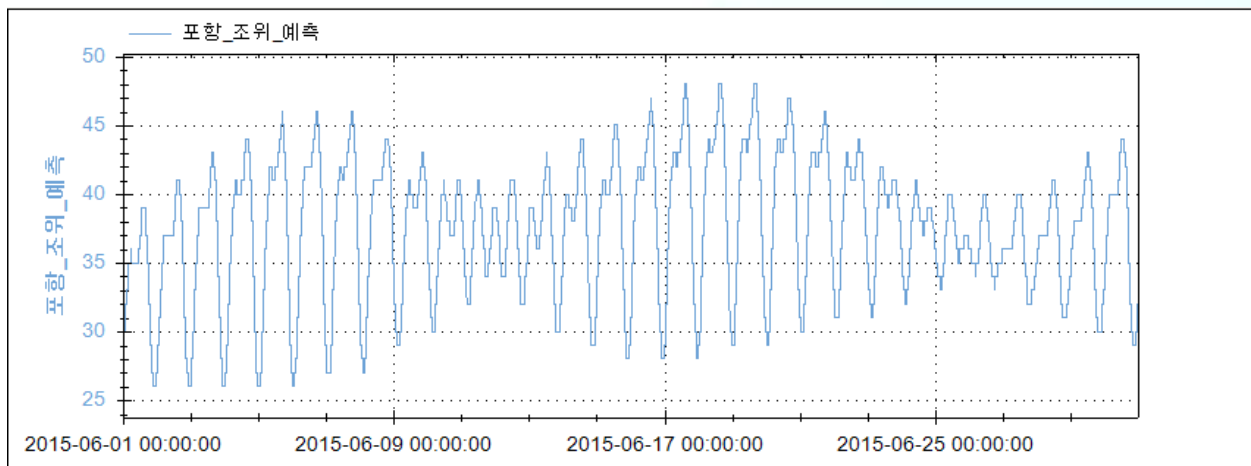
해역	관측소	대조기(망 6.3)		대조기(삭 6.16)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서해	인 천	901	06.05 06:28	910	06.18 05:56
	안 흥	680	06.05 05:29	682	06.18 04:58
	군 산	704	06.05 04:47	714	06.18 04:15
	목 포	475	06.05 04:01	491	06.17 02:41
남해	완 도	380	06.04 23:35	379	06.16 22:23
	마 산	194	06.04 22:17	199	06.17 21:40
	부 산	127	06.04 21:46	129	06.16 20:32
	제 주	282	06.05 00:14	282	06.17 23:46
동해	포 향	46	06.05 16:36	49	06.18 15:47
	울릉도	39	06.03 14:14	44	06.17 14:12
	속 초	39	06.05 16:14	41	06.17 14:59



< 2015년 6월 인천 조석예보 >



< 2015년 6월 완도 조석예보 >



< 2015년 6월 포항 조석예보 >

## □ 해양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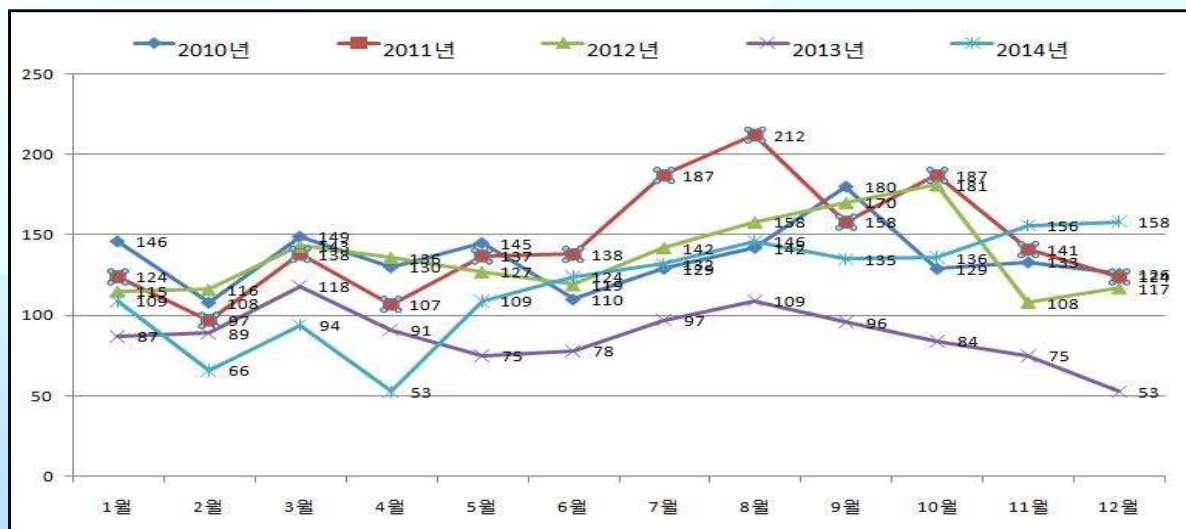
- 낚시어선, 모터보트 등 해상 레저활동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빈발
- 태풍, 안개, 국지성 폭우로 인한 화재, 침수, 침몰 등 해양사고 예방
- 태풍 내습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위해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사전 안전한 항구로 피항 및 소형어선은 육지 양륙
-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하여 여객선의 선체 및 기관 안전점검 필요

##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10.1.1 ~ '14.12.31)

-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7,479척(49,945명)이 발생하여 선박 7,185척(96.1%) 및 선원 49,070명(98.2%)이 구조되고, 선박 295척(3.9%) 및 선원 848명(1.8%)이 사망(631명) · 실종(244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7,479	49,945	7,185	49,070	295	848	631	244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58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2010년	1,627	9,997	1,569	9,844	58	153	85	68

## - 월별 선박사고 현황



**최근 5년간 6월 중 사고발생 현황**(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최근 5년간 5월 해양사고는 총 597건(평균 119건) 발생
- ◆ 사고유형별: 기관손상(34.7%), 충돌(12.9%), 안전저해(11.4%)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
- ◆ 선종별: 어선(71.4%), 기타선(12.4%), 예부선(6.2%)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

**6월 해양사고 대비 주안점**(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안개 등 시계 제한 시에는 반드시 안전속력으로 운항합니다.

**해양 안전정보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 따듯한 기온으로 인해 레저사고 증가 추세**

- 기온 상승으로 인해 해양레저 활동 증가로 최근 5년간 고무보트 사고는 13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낚시어선, 모터보트 사고도 빈발
- 선박사고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행락객 관련사고 다발 예상

**▶ 장마철, 태풍 내습기 등 기상 관련사고 대비**

- 6월은 태풍 내습기가 시작되고, 장마철 및 여름 다량 강우 등 사전에 기상 변화 대응 준비 필요
- 기상불량 예상 시 소형 선박은 육상 양륙하고 그 외 선박은 피항지 대기 등 안전대책 강구

**▶ 기상 급변으로 인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 태풍 북상 등으로 해상기상이 갑자기 불량할 수 있으므로 항해 및 조업시 어구 및 어망 결박(고박) 철저 등 안전조치 확행
- 기상이 불량할 경우에는 어창 및 기관실 개구부의 지속적인 침수로 침몰 등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야간은 특히 안전관리 철저

**▶ 장기간 장마로 인한 전기시설, 항해장비 점검 철저**

- 장마철 습한 날씨로 선내 전기설비의 절연상태가 불량해져 화재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으므로 노후 전선 등 사전 점검 후 출어
- 시계가 불량한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속력, 전방견시 철저

**▶ 레저 보트 및 요트 등 조우시, 충분한 시간과 거리로 안전항해**

- 본격적인 해양레저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낚시어선에서 레저 활동시에는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 착용 철저
- 바다와 항법에 대해 정통하지 않는 레저보트 및 요트 등을 해상에서 조우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어 안전항해

**▶ 해상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안전 경각심 고취**

- 기온이 증가하는 하절기 진입시기로 해상의 기온이 무더위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시기이므로 무리한 조업 및 항해 자제(충분한 휴식 필요)

**▶ 안개 등 시계 불량에 의한 충돌사고 예방**

- 20톤 미만 소형어선은 6마일 레이더 탐지권에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레이더 미 탑재된 소형 선박은 항해 자제 및 항해시 안전항해 철저
- 1인 조업선은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요청 및 인지가 어려우므로 구명동의 착용 철저 및 해양사고 목격시 122 신고



## 수온 동향

### ★ 6월의 예상 수온

6월의 연안 수온은 동해, 남해가 1°C 내외의 저온현상을 보이겠고, 서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겠음.

- 동해 : 13~19°C 분포
- 남해 : 16~20°C 분포
- 서해 : 18~23°C 분포

### ▶ 지난달 수온 분포

5월의 연안 평균수온은 10.4~18.8°C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10.4~14.7°C, 남해연안은 14.4~16.8°C, 서해연안은 13.7~18.8°C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5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와 서해, 남해 근해역에서 각각 14~16°C, 9~14°C, 14~18°C의 수온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어장 분포

### ★ 6월의 어장 분포

6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남해 연안역의 연안냉수와 북상하는 대마난류수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7~18°C 수온전선대를 중심으로 고등어, 전갱이, 삼치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내유자원량의 증가로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이 예상. 근해안강망어업은 연안저온수와 황해난류 사이에 형성되는 수온 전선대를 따라 서해중남부해역에서 제주도 주변해역에 걸쳐 아귀류, 양태, 참돔,

반지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인 어황은 어군 밀도의 지속적인 증가로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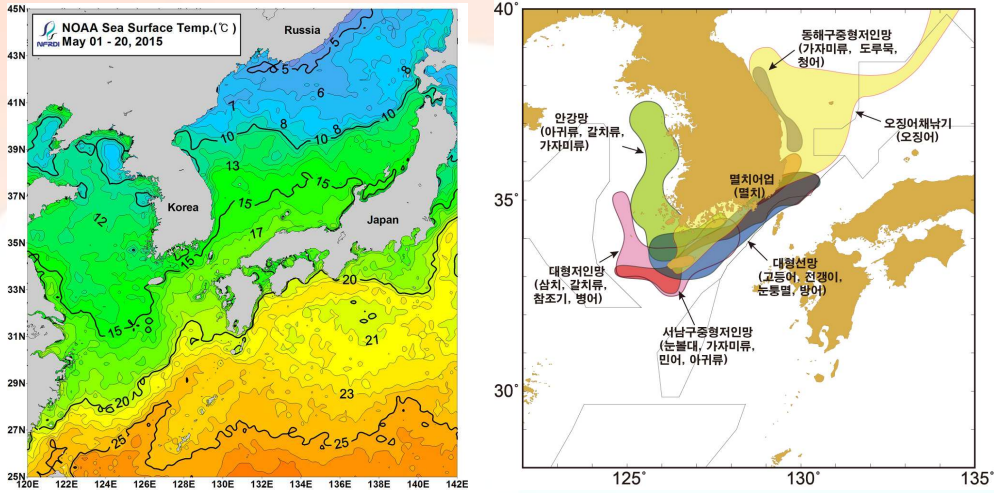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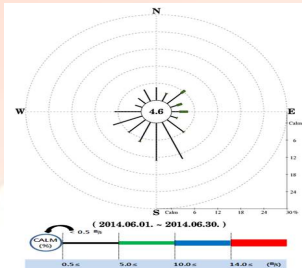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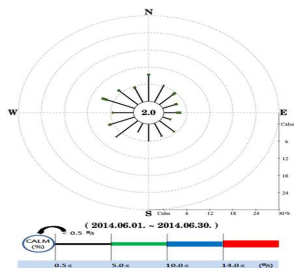
그림 3. 광역 수온 분포(위성)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6월)

고 등 어	고등어는 대마난류의 흐름을 따라 제주도 주변해역과 동해남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내유량이 점차 증가하여,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
살오징어	살오징어는 지난 가을과 겨울에 발생한 계군을 대상으로 남해동부해역부터 동해중남부해역까지 폭 넓은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인 어황은 여름철 어기의 시작시점으로 어획이 활발하지 못하여 평년비 다소 부진하거나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멸 치	멸치는 권현망어업이 금어기(4~6월)에 접어들어 따라 자망어업에 의해 봄철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내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거제도~기장해역에서 조업이 활발하겠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
갈 치	갈치는 제주도 주변해역과 서해남부 일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주 조업어장으로의 내유량 감소 및 낮은 자원밀도로 전체적인 어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참 조 기	참조기는 서해남부해역과 제주도 서부 및 남해서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적인 어황은 어군밀도가 높지 않아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기 타	꽂치는 월동을 마치고 북상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중남부해역에서 일부 어장이 형성되었으나, 명태, 말쥐치, 갑오징어는 자원수준이 낮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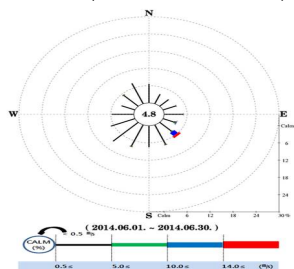
6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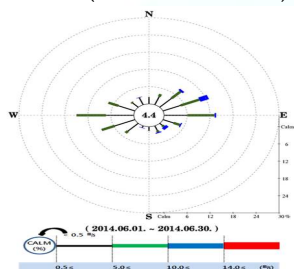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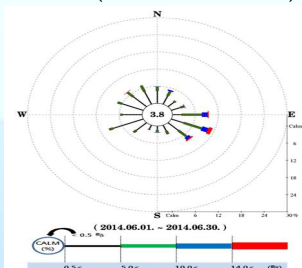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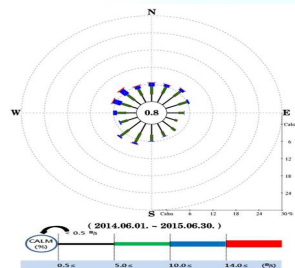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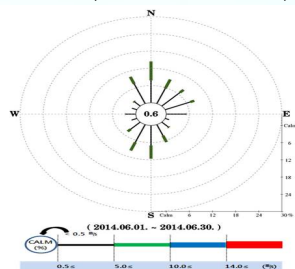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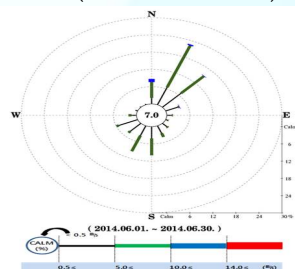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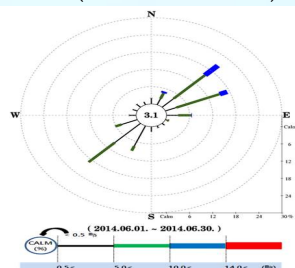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면바다)



동해(동해중부면바다)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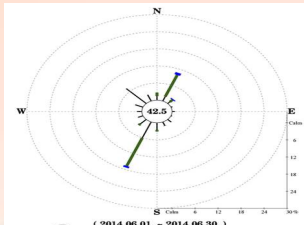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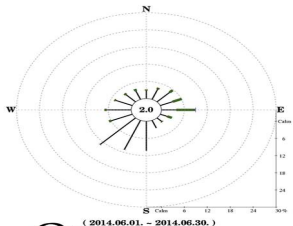
그림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4년 6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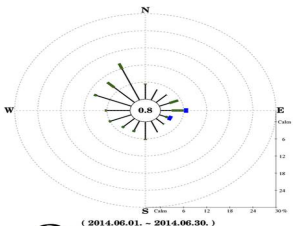
## 6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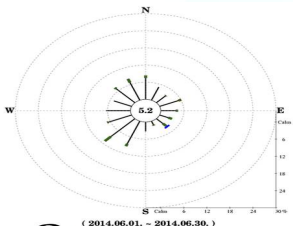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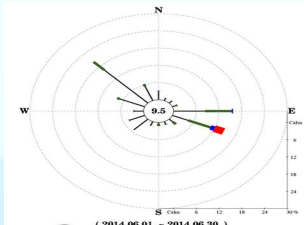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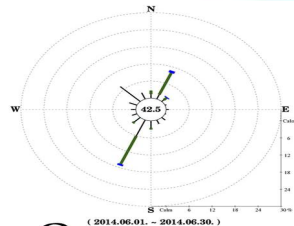
십이동포(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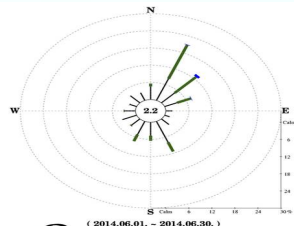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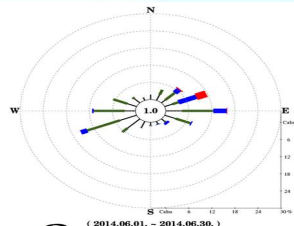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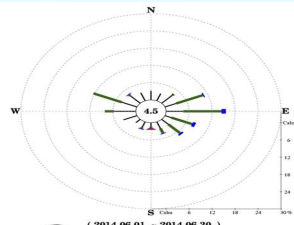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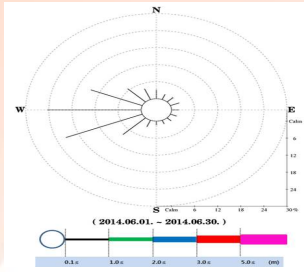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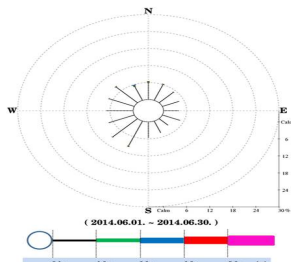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그림 .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4년 6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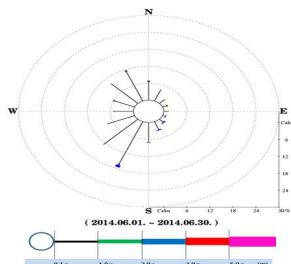
## 6월의 파향(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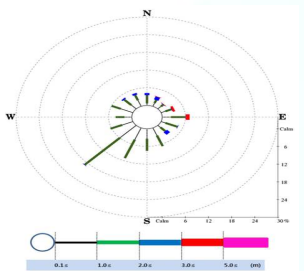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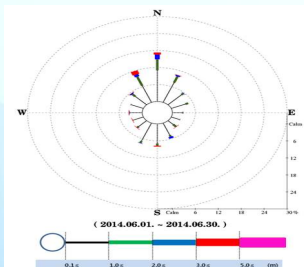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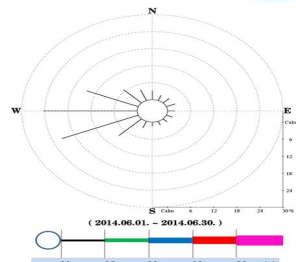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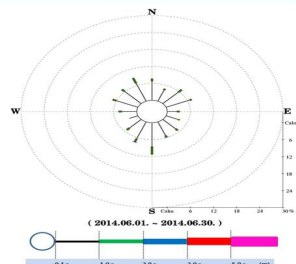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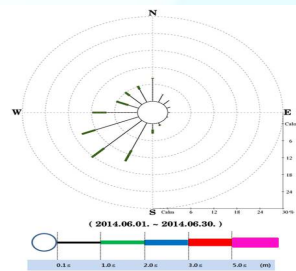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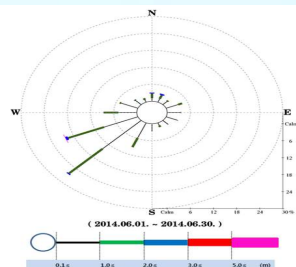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면바다)



동해(동해중부면바다)



포항(동해남부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그림 . 해양기상부이 관측 파향('14년 6월, 파향장미)

## 【참고자료 2】

### ▶ 6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일 시	선 명	피 해	사 고 원 인
'11.6.4. 09:00	<b>하*호</b> (여수선적, 어선, 1.26톤, 승선원 3명)	선체전복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 항해중 대*호가 하*호의 선체 중앙을 충돌하여, 하*호가 전복되었으나, 선원은 자력으로 육상으로 상륙
'12.6.10 13:15	<b>3****호</b> (여수선적, 어선, 29톤, 승선원 7명)	선체전복	여수 봉산동에서 조업차 출항하였으나 적재된 어망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전복

